

완도군, 희귀식물 자생지 생육환경 개선사업 완료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수목 가지치기·침덩굴 제거·보호책 설치 등

산림생태계 보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지정할 계획

완도군은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하여 대대적인 생육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군은 군외면 당인리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12,000㎡ 생략하고 있는 수

목에 대하여 가지치기, 침덩굴 등 생육 저해 덩굴류 제거, 부패부에 대한 외과수술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과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보호책 설치 등을 실시했다.
현재 군에서 지정 관리하는 산림유

전자원보호구역은 완도 장좌지구와 군의 당인지구 2개소(32,000㎡)이며, 주요 분포 수종으로는 노각나무, 붉가시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초본류 등 희귀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박은재 환경산림과장은 "산림유전

자원 보호구역은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산림에 있는 식물의 종 또는 산림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한다."고 했다.

또한 "년차별 기본 계획에 따라 생육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도=김영수 기자



완도군 군외면 당인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강진군, 주민주도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준비 박차

이번달 11일 창립총회 앞두고 조합원 모집 중

강진군은 강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관리하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와 지속성을 갖도록 주민 주도로 도시재생지역을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며 국토교통부의 설

립 인가를 받는다.
강진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6월,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 마을관리협동조합 준비위원회(위원장 김동삼)를 구성해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그에 앞서 5월에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준비팀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지역기반 정책연계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마을관리협

동조합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한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받아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협동조합 발기인을 구성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개설한 '도시재생 연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을 이수했고, 집중적인 컨설팅과 수차례 워크숍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 요건과 절차를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도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설립되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마을 거점시

설과 생활 인프라를 활용해 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수익을 창출해 생활 인프라를 유지하는 등 마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김병기 강진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한 단계 단계 발전시켜 왔고, 마을관리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조합원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군, 병해충 발생 최소화 당부

오는 11일까지 중점방제 벼 수량 및 품질 확보 필요



장흥군은 제9호 태풍 마이삭 통과 후 오는 11일까지 벼멸구, 흑명나방 등 비래해충 중점방제를 통해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일부지역에서 방제가 소홀한 농지와 친환경 단지

위주로 벼멸구로 인한 집중고사 현상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벼멸구는 벼 밀동에 집중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예찰하지 않고 방제를 소홀히 하였다가는 순식간에 진전하여 피해가 늘어나므로 벼 밀동까지 방제 약제를 충분히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벼 후기 병해충 품질과 수량에 영향을 주므로 태풍 통과 후 살균제와 비래해충 전용약제를 사용하고 방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동취재본부

진도군, 유모차 살균기 우리 아이 건강지켜

보건소에 설치...아이용품 살균 소독 OK

진도군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진도군 보건소에 유모차 살균기를 최근 설치했다.
유모차 살균기는 자외선과 적외선으로 각종 생활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제품으로 작동법도 간단해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유모차 살균기는 15~30초 이

내에 자외선 살균 램프를 통해 모든 종류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99.9% 신속하게 살균 소독처리 된다.
또 유모차와 카시트, 장난감등 아기 용품은 물론 어르신 보행 보조차, 휠체어까지 소독이 가능해 군민 누구나 간편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육아 필수품 중 하나인 유모차는 외부 환경에 노출이 잦아 세균 번식과

오염 등으로 세탁이나 청결 유지가 쉽지 않아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유모차 위생 문제에 고민이 많았지만 살균기 설치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면역력이 취약한 유아의 건강을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출산·육아지원과 주민들의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코로나 19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소상공인에 힘이 되어 드겠습니다”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 극복 '톡톡'

해남군은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펼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남군은 코로나19 방역단계가 향상되면서 매출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업자 등을 지원하는 '경제방역'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우선 지역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한 해남사랑상품권 발행액을 1,150억원까지 확대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4월 첫 발행된 해남사랑상품권은 15개월여만에 1,000억원을 판매 돌파한 가운데 올해 발행분 또한 현재까지 948억원이 판매되며 82.4%의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발생 이후 해남사랑상품권

을 정책지원과 연계한 점도 크게 주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규모 사업체 현장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해남형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도내 유일하게 시행, 현재까지 6,548업체에 각 100만원을 지원했다. 군은 경영안정자금 중 50만원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데 이어 3,226개 사업체에 각 30만원씩 지급한 소상공인 공공요금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100억원, 농어민 공익수당 81억원 등 지역 내에서 다시 쓰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은 소상공인의 대출금에 대한 이차지원과 특례보증출연,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등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꿀밤고구마’ 한 품목재배로 1천6백만 원 매출

강진군, 봄철 고구마순 판매 8백만 원 · 햇고구마 판매 8백만 원

강진군에 꿀밤고구마 한 품목을 재배해 봄철 고구마순 판매로 800만 원, 8월 한 달 동안 햇고구마 판매로 8백만 원, 총 1천6백만 원 소득을 올린 농가가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군동면에 거주하고 있는 장명자(59세) 씨이다.
이 농가는 지난해 강진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처음 개장하면서 3,305㎡(약 1,000평)의 작은 면적에서 고

구마 재배를 시작해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장명자 씨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역 내 안정적으로 정착해나감에 유통이 활성화되는 분위기에 따

라 초기자본이 상대적으로 덜 드는 고구마를 재배하면 판로 걱정없이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재배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장 씨는 해남에서 신품종 꿀밤고구마를 구입해 비닐하우스 1동(661㎡, 약 200평)에 늦겨울부터 모종을 기르고, 3월 중순 3,305㎡(1,000평)의 밭에 고구마순을 심었다.
강진=김영일 기자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